

우택주(침시대)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이 연구는 민수기를 작성한 포로시대 혹은 포로시대 이후(즉, 제2성전시대)의 제사장 집단이 이미 사라진 군주시대의 전승들을 활용하여 어떤 수사적 의도를 전하려 했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순전히 제사장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는 레위기와 구별된다. 레위기와 달리 민수기는 두 가지 전승, 즉 군주시대에 유래한 비제사장 전승(남 유다 기원의 J, 북이스라엘 기원의 E 혹은 북 왕국 멸망 후 남 왕국에서 편찬한 JE을 지칭)과 제사장전승(P)이 혼재하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01017524).

여 있다.<sup>2)</sup> 사용한 전승 종류의 차이에 근거하여 레위기와 민수기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제2성전시대)라는 같은 시대의 같은 제사장 집단의 작품이면서도 상이한 의도를 지닌 성서라고 상정할 수 있다. 민수기는 고대 시가, 불평과 반역 이야기, 말하는 나귀에 관한 전설, 율법과 제의, 기도, 예언, 인구조사목록, 여행기록, 그리고 기타 목록 등 매우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민수기를 작성한 제사장 집단은 군주시대에 유래한 비제사장 전승들을 책의 중간 위치(민 10-14장, 16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단락의 배열에서 제사장 전승인 민수기 15장이 이 군주시대 전승군의 가운데 불쑥 삽입되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이 군주시대 전승들은 다시 민수기 후반부인 20-24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후로 책의 끝까지 군주시대 전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일찍이 노트(M. Noth)는 “내용상 통일성이 없고 구성상의 패턴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거의 일관성 없는 매우 다양한 자료들의 모음집이다”고 말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매우 복잡한 작성과정을 거쳐움이 틀림이 없고 또한 그럴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일즈(B. S. Childs)는 자료를 배열할 때 신학적 의

2) 여기서는 연구목적상 민수기의 J와 E를 세분하는 작업(R. E. Friedman, *The Bible with Sources Revealed: A New View into the Five Books of Moses* [New York: HarperOne, 2003])이나 P가 문서인지, 편집층인지에 대한 논의(편집층이라는 견해를 위해, Frank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93-325), 그리고 P를 H(Holiness Code=레 17-26)와 구별하여 전개하는 논의(cf.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1995]; Jeffrey Stackert, *Rewriting the Torah: Literary Revision in Deuteronomy and the Holiness Legisla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07]; Saul M. Olyan, *Rites and Rank: Hierarchy in Biblical Representations of Cul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자료비평적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최근의 연구 사례를 위해 다음을 보라. Sarah Shectman, *Women in the Pentateuch: A Feminist and Source-Critical Analysis*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7-8.

3) M. Noth, '민수기', (이경숙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2. 월제 M. Noth, *Das vierte Buch Moses: Numeri* (ATD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도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단순한 자료모음집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sup>4)</sup> 최근에 와츠(James W. Watts)는 “제사장 문헌(이후 P)의 기원 이해를 진작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제사장의 수사법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들을 새롭고 창의력 있게 해석하는 일 (construals)”이라고 주장했다.<sup>5)</sup> 만일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제2성전시대)에 제사장 집단이 완성한 민수기가 아무런 생각이나 계획 없이 무작위로 자료들을 배열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염두에 두었을 “신학적 의도의 통일성”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아울러 그들이 이렇게 상이한 기원의 전승을 지금의 모습으로 배열하면서 도모했던 수사적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민수기 해석에는 이런 전승복합체를 유기적인 상호관련성 속에서 의미 있게 설명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런 질문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오늘날의 성서학계가 대체로 소위 광야시대를 묘사하는 성서단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으며 아주 후대에 신앙공동체의 특정한 필요와 신학적 목적에 비추어 재구성한 기록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제2성전시대) 제사장집단이 이 군주시대 전승을 선택하여 자신들이 간직한 제사장 전승과 함께 민수기의 현재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의도하는 수사적 목표나 신학적 의도를 묻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1979), 190-200.  
 5) James W. Watts, “The Torah as the Rhetoric of Priesthood,” Gary N. Knoppers and Bernard M. Levinson (eds), *The Pentateuch as Torah: New Models for Understanding Its Promulgation and Acceptan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320; idem, “Using Ezra’s Time as a Methodological Pivot,”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and Baruch J. Schwartz (eds.),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11), 489-506.  
 6) 최근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우택주, “주전 10세기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성 논쟁,” 『복음과 실천』 54집 (2014, 가을), 15-42를 참조하라. 성서 내려티브에 나타난 족장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시대(심지어 통일왕국시대까지)는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 비평적 성서학계의 지배적 담론이다.

의 연구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소홀히 해 온 것 같다.

최근까지 민수기 해석자들은 통일성도 없고 패턴도 없는 복잡한 자료 모음집인 민수기에서 문학적 통일성이나 사상적 일관성을 부여할 구조와 패턴을 찾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그것을 통해 본문을 설명해왔다. 쉽지 않은 도전이고 다수의 합의를 얻을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1장과 26장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인구조사목록에 초점을 둔 해석이며<sup>7)</sup> 다른 하나는 통일성 있는 문학구조에 입각한 해석이고<sup>8)</sup> 나머지 하나는 지정학적 변화(시나산-)가데스-)모압 혹은 시나산-)모압)에 따른 이해이다.<sup>9)</sup> 앞의 두 가지 경향은 민수기 본문의 최종형태와 그 구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통전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통전적 접근은 외관상 탁월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 분석이 특정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그 상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sup>10)</sup> 민수기의 거시구조가 미시적 단락의 해석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테면 제사장 자료로 알려진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목록이 민수기 중반부인 10장 29절부터 등장하는 군주시대 전승들에 어떤 방식으로 의

7) Dennis T. Olson,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the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Scholars Press, 1985).  
 8) M. Douglas,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Sheffield: JSOT Press, 1993); J. Milgrom,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dition Commentary*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G. J. Wenham, *Number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1).  
 9) R. P. Knierim and G. W. Coats, *Numbers,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IV*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B. A. Levine, *Numbers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4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idem, *Numbers 21-36*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10) 이런 결과는 우리말 민수기 주석을 집필한 왕대일과 정중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왕대일, 「민수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정중호, 「민수기 1」(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미를 부여하는지에 관해서는 설명을 찾기 어렵다. 민수기 13-14장의 정탐꾼 내러티브나 민수기 22-24장의 발람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논쟁 설화(민 11-12장)와 프리바 사건(민 20장)의 불평과 반역 모티프가 선행하는 제사장 전승과 어떤 수사적 관계에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위의 통전적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최종본문에 집중된 성서해석이 본문 작성과 편찬에 개입했을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라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며 당대의 신학적 필요와 요구를 해석 변수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와 반대로 역사적 상황과 요구를 해석변수로 삼으면 상이한 전승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의 본문이 지니는 수사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고 평가하도록 이끌 수 있다. “민수기는 복잡한 구성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도 더욱 자료비평적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중하게 하면 그런 분석은 광야 경험 속에 깃든 아주 상이한 생각들을 확인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다. 그런 생각들은 문서발전 단계를 희생시키고 최종형태만 연구하게 되면 잃어버렸을 것들이다.”<sup>11)</sup> 따라서 상이한 기원의 전승이 혼재한 민수기 해석에는 역사비평적 고려가 문학구조의 이해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는 오늘날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수기가 작성된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제2성전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요구에 비추어 본문 구성에 활용된 상이한 전승들이 지금의 형태로 지향하는 수사적 의도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이 연구는 민수기를 작성한 포로기와 그 이후시대의 제사장 집단(P)이 기존의 군주시대 전승 즉 비제사장 전승(JE/10:29-36; 11:1-35; 12:1-16; 13:17a-20, 22-25, 27-31, 33; 14:17b-9, 11-25, 39-45; 16:1b,

12-15, 25-34; 20:1-9, 14-21; 21:1-9, 14-32; 22:2-24:25; 25:1-5)을 현재 위치에 배열함으로써 어떤 수사적 의도를 도모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제 2성전시대 제사장 집단이 민수기를 작성하는 과정에 드러난 그들의 신학적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오늘날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시적 해석 경향과 공시적 해석경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두 가지 성서해석 방법론이 공존하는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수기 안의 군주시대 전승(JE)이 각각 P의 문학구조 안에서 지닐 수 있는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에 유용한 방법론은 편집비평과 수사비평이다. 이 연구에 본보기를 제공하는 편집비평의 실제적 예는 쿠틀(R. B. Coote)의 아모스서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그는 아모스서를 A(8세기), B(7세기), C(포로기)의 편집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가 해당 역사와 사회적 정황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고 최종 단계에서 선행 단계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제사장 전승(P)은 쿠틀의 C 단계와 같고, 군주시대 전승(JE)은 쿠틀의 A 혹은 B 단계와 견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연구는 이 연구의 모델로 적절하다. 또한 수사비평의 경우는 “누가 이 본문을 사용하여 무엇에 관하여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sup>14)</sup> 여기서 우리는 P의 선행 단락들의 주장,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P의 주장, 즉 창조 전승, 족장 전승, 출애굽 전승, 성막 전승 등에 나타난 신학적 주장을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동시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목적과 분량의 한계로 인해 민수기의 개별 단락을 상세하게 주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자세는 해당 단락 자체의 의미를 면밀히 읽는 일과 더불어 선행하거나 들

11) Levine, *읽기*, 49

12) A. B. Leveen, *Memory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Numb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6.

13) R. B. Coote,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우택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원저 R.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1).

14) James W. Watts, "Using Ezra's Time as a Methodological Pivot," 505.

러싸고 있는 P의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 수사적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수사적 지향점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할 때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제2성전시대)의 예후다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집단이 당면한 정치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민수기 작성의 신학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2. 민수기의 P와 JE의 편집과 수사적 의도

### 1) 10장 29-36절

민수기의 JE 전승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시작한다. 이 구절은 시내 산 단락(the Sinai pericope)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민수기 10장 11-28절에 이어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구절 앞에 위치한 민수기 10장 11절-28절은 유다 자손 진영을 선두로 하는 각 지파 진영이 대오를 갖추고 출발했다는 내용이다.

민수기 10장 29-36절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모세가 자신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에게 광야 여정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호باط이 거절하였다는 내용(29-32절)이다. 둘째는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광야 여정을 인도했다(33-36절)는 내용이다.

P는 왜 이 전승들을 이곳에 배치하였을까? 게다가 단락 내 두 전승은 내용상 서로 상충된다. 먼저 모세가 호باط에게 길 안내를 요청한다. 호باط은 이를 거절하는 어조의 답변을 남기고 본문에서 사라진다. 노트(M. Noth)와 그레이(G. B. Gray)는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에 근거하여 호باط이 모세의 제안을 수용했을 것으로 해석한다.<sup>15)</sup> 하지만 실질적

15) M. Noth, 「민수기」(이경숙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91; G. B. Gray, *A Critical Commentary on Numbers* (Edinburgh: T. & T. Clark, 1976), 95.

으로 광야 여정을 안내하는 것은 “삼 일 길에 앞서 가는 여호와와의 법궤”이다. 대다수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 진술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sup>16)</sup> 야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신정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P가 광야 여정에서 인간 측 도움을 용납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수기의 나머지 단락에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부정적 논조 역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지지해준다. 민수기 22장에서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한다(22:4, 7, JE). 32장에서는 미디안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남자 탓에 회중 가운데 역병이 돌았고 당사자 두 명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잔인하게 처벌하자 역병이 그친다(민 25:6-9, P). 이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미디안 남자들을 도륙하였다(민 31장, P). 이런 대목들에 주목한 도즈만(Thomas B. Dozeman)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일련의 언급이 민수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고 있다.<sup>17)</sup> 그의 견해는 P의 수사적 의도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포로후기 제사장 중심 공동체가 다른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취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모세와 모세의 아내 미디안 여인 십보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오해와 파장은 어떻게든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sup>18)</sup>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세의 위상 때문에 이 통혼문제는 간단히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디안 족속에 대한 포로후기 제사장 집단의 이러한 난감한 입장을 이 전승의 활용 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적어도 P는 광야 인도의

16) Levine, 윗글, 315f; Milgrom, 윗글, 79; 왕대일, 윗글, 279-80. 밀그롬은 초자연적 인도와 인간적 인도의 공존 사례를 창세기에서 제시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P의 특징이라는 점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17) Thomas B. Dozeman, "The Midianites i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Numbers," Thomas Römer (ed),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Leuven-Paris-Duddeley: Uitgeverij Peeters, 2008), 261-84.

18) Cross, 윗글, 203. 그는 이 단락을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사실을 비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다.

주역이 언약궤라는 전승을 활용하여 미디안 장인에게 “눈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입지와 그의 신성한 권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리고 조금씩 평가 절하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같은 P의 이해가 적절한 지는 이어지는 광야 불평 사건들을 다루면서 드러날 것이다.

## 2) 11장 1절-12장 16절

이 단락 역시 군주 시대 전승(JE)을 활용하여 포로후기 제사장 집단(P)이 해결해야 했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단락의 구조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11:1-3 백성의 원망과 여호와의 불

4-9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 인해 추가적 식량 부족에 대한 불평

10-15 모세의 원망과 불평어린 기도

16-23 칠십 장로를 세우다

24-30 예언하는 칠십 장로: 모두 선지가 되기를 바란다

31-35 기브롯 핫다아와

12:1-16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논쟁하다

이 단락은 연속적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단락 사이의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백성이 원망하자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랐고 모세가 중보기도하자 불이 꺼진다. 그곳이 다베라라고 한다(1-3절). 그러나 본문은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혹시 모세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이유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어지는 4-9절의 서두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참고, 출 12:38)을 언급하는 까닭과 어떤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제

본문은 그들 때문에 언약공동체의 분위기가 불평하는 분위기로 발전하였다고 묘사한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다른 인종으로 인해 생긴 식량부족의 건으로 인해 모세는 야훼께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15절)라고 기도한다. 물론 본문은 불평이 백성에게 줄 고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모세가 짊어질 정신적 부담이 겹으로는 “고기”이지만 원인은 “다른 인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술이 내포하고 있는 모종의 연관성을 놓치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소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전한다. 16-17절에서 야훼는 모세의 부담을 칠십 명의 장로와 지도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 조치를 4-6절에서 묘사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백성의 욕구와 불평을 해소하는 조치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는 영이 임하는 현상을 불평의 해소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이다.<sup>19)</sup> 17절은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고기를 먹고픈 백성에 모세에게 지운 짐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 즉 “예언”(25, 26, 28절)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주석가들은 일찍부터 이 단락에 백성의 원망과 칠십 장로의 예언 전승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승이 교묘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이해했다.<sup>20)</sup> 그러나 이 단락의 핵심을 원망의 원인과 예언 전승을 하나로 결합시킨 데서 찾는 것으로 해석하고 끝나기에는 충분치 않다. 11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

19) 예언하는 영을 칠십 장로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본문의 불평 사건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상하다는 점을 주목한 주석가는 없는 것 같다.

20) 참고, Benjamin D. Sommer, “Reflecting on Moses: The Redaction of Numbers 1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1999), 601-24. 그는 11:4-35이 11:1-12:16까지 이어지는 긴 단락의 일부로 이해한다.

시기를 원하노라”는 모세의 말에서 해법을 찾는 방식도 이채롭다. 이 말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라면 아무도 선지자가 아니라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끈다.<sup>21)</sup> 그렇다면 이것은 P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모세-P는 그의 신성한 권위가 필요했다!-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예언자(모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현존하는 제사장 중심의 사회 질서에 맞서거나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의 뜻과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백성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터져 나온다.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실 때문이었다(12:1).<sup>22)</sup> 결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판결조치로 귀결된다.(12:10)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아론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기된 모세에 관한 혐의는 최고의 예언자로서 가지는 거룩한 권위를 근거(12:6-9)로 옹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즉각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를 주고받는 정도의 예언자에게는 이방여인과의 결혼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여기까지 P가 말하려고 하는 수사적 의도는 이런 것 같다. 누구라도 예언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예언자인 사회에서는 예언자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위계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구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밀어 기존 질서를 위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의 이방여인과 통혼을 금지 조치는 일찍이 모세와 십보라 혹은 구스여인이 보여준 경우를 근거로 합당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예언자로서 지냈던 모세의 특

21) R. B. Coote and M. P. Coote, 『성서와 정치권력』 (장춘식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1990]), 132. 쿠틀 부부는 여기서 요엘서 2:28-29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만일 남녀모두가 예언자가 된다면 “현존하는 질서에 도전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 본문의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인인지(참고 함 3:7)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인지는 우리의 논의에 결정적이지 않다. 다만 인종 문제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Milgrom, 윗글, 93).

별한 위상을 제외한다면 통혼은 여전히 해결할 문제로 남는다. P는 아직 통혼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하는 것 같다.

### 3) 민수기 13-14장

통혼문제는 이쯤에서 접고 P는 13-14장에서 포로기와 포로후기(제2성전시대)에 직면했던 또 다른 주제를 다룬다. 그것은 땅 소유에 관한 것이다.<sup>23)</sup> 여기서도 P는 군주시대 전승들(13:17a-20, 22-25, 27-31, 33, 14:7b-9, 11-25, 39-45)을 활용한다. 군주시대 전승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 땅 정복을 주장하는 사람이 갈렙이라고 말한다. P는 여기에 여호수아를 추가하여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주장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여호수아를 추가한 까닭은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는 D전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여하간 P에게 땅 정복 혹은 정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행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날 수 사십 일을 사십 년으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해석(14:29-34)을 제시하는 쪽은 P이다.

이런 이야기 틀은 전형적으로 P의 신학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sup>24)</sup> P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변명과 머뭇거림 없이 즉각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P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자세에 목숨을 거는 집단이다. 이런 신학적 성향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창세기 6-9장의 홍수기사, 출애굽기 25-31, 35-40장의 성막 건설에 관한 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P의 이러한 명백한 사고구조

23) Horst Seebass, “‘Holy’ Land in the Old Testament: Numbers and Joshua,” *Vetus Testamentum* 56 (2006), 92-104. 그는 민수기가 여호수아처럼 땅 정착 전승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24) 이러한 P의 대표적인 문장구조는 이렇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되었다 혹은 다 준행했다”(예, 창 1:7b; 7:22; 출 39:31-32).

의 틀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즉각 실행해야 할 과제이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유와 변명 혹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 지체하거나 회피할 종류의 과제가 아니었다. 그런 맥락에서 P가 유다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 태도를 칭찬하고 반대로 불평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사십 년의 방황과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P는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남아 있거나 피신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이 단락 이해는 서두의 민수기 2장 32절에 보도한 이스라엘 군인의 수효를 고려해야 한다. 육십 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유한 백성이 땅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땅을 악평”하거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거나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거론하면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엄청난 수효로 축복해 주신 야훼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세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P의 구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언급은 이곳 광야 전승을 기술할 때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십 만 명이 넘는 정도로 축복을 받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P의 입장에서 오히려 야훼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태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또한 그것을 지킬 만큼의 능력과 여건도 하나님이 마련해주었다는 것이 P의 입장이므로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에 대해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원망하는 나머지 출애굽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P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땅 약속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불신한다면 광야-약속의 땅 밖의 모든 곳을 상징-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 4) 민수기 16장

P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제사장이 주도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현재의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는 성소) 중심 사회의 질서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인이 비 레위인과 결탁하여 제사장 직제가 주도하는 포로후기 팔레스타인 사회 자체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음을 반영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곳이 민수기 16장이다. 여기서도 P는 군주시대 전승(1b, 12-15, 25-34절)을 활용한다. 군주시대 전승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불만(12-15절)을 다룬다. 여기서 그들은 땅에 산 채로 매몰되어 죽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P는 여기서 레위인 고탓의 손자 고라의 불만을 다룬다(1a, 2-11, 16-24, 35절). 여기서는 각기 향로를 들고 나온 이백 오십 명이 야훼에게서 나온 불에 타죽는다.

이 단락의 최종 형태는 거룩한 직무에 대한 레위인 일부의 불만과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민간인 일부의 불만을 엮어 민수기 3장에서 언급한 성전 중심 사회의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사례를 다루면서<sup>25)</sup> 동시에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민간인 일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모든 회중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 36-50절[MT 17:1-15, P]에서 확대 기술되고 있다. 나머지 회중이 백성의 일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자 회중 가운데 염병이 발생하여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모세의 명을 따른 아론의 향로 중재로 다행히 만 사천칠백 명만 죽고 염병이 그쳤다고 보도한다.

25) 민수기 2장에 따르면 레위인 고라와 비레위인 르우벤 자손의 진영은 아주 근접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손쉽게 결탁할 수 있었다 (Leveen, 윗글, 121; J. Magonet, "The Korah Rebell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4 [1982], 3-25).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 사회 일각에서 불거진 불평과 불만 사태는 파급효과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 아론의 시기적절한 중재 역할은 위기에 빠진 백성 다수의 목숨을 건져주었다고 기술하므로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한편, 불평 주제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11-16장의 긴 단락 한 가운데서 P 고유의 전승인 민수기 15장을 배치하는 것은 아주 특이하다. 15장은 제물 규정(1-16, 17-31절),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사형(32-36절), 그리고 옷단 귀에 다는 술(37-41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물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14-15, 26, 29-30절). 이 규정은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풍요로운 소산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땅 정복을 기정사실로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sup>26)</sup> 그렇다면 제기된 문제에 대한 P의 태도는 매우 명료하다.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땅 정복은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만일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에 대한 단락은 포로후기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정황과 일치한다.<sup>27)</sup> 결국 사형이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입는 옷에 표식을 새김으로써 “야훼의 거룩함을 명심하고 사는”(15:40) 백성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sup>28)</sup>

26) Dozeman, 윗글, 127

27) 15:32-36은 앞의 17-31절과 뒤의 37-41절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해석을 위해, Simon Chavel, “Numbers 15, 32-36 A Microcosm of the Living Priesthood and Its Literary Production,” Sarah Shectman and Joel S. Baden (eds), *The Strata of the Priestly Writings: Contemporary Debate and Future Direction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9), 45-55.

28) Leveen, 윗글, 105-8

## 5) 민수기 20장<sup>29)</sup>

P는 1-2절에서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광야 여행기록과 미리암의 죽음을 보도한 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를 언급하는 JE전승을 소개한다. 이어서 P는 10-13절에서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야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12-13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한다. 자세히 읽어보면 야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장본인은 모세이다.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인 양 행동한 것이다.<sup>30)</sup> 아론은 다만 모세와 함께 회중을 인도했다는 이유로 모세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아론은 더 이상 묘사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식으로 모세처럼 거역했는지는 더 이상 알 수 없다(24절). 그러나 예언자 모세의 운명과 제사장 아론의 기능은 포로후기에 다르게 취급된다.<sup>31)</sup>

14-21절에서 P는 에돔을 우회했다는 JE전승을 소개한다. 이는 에돔을 평화롭게 통과하는 것처럼 말하는 신명기의 주장(신 2:1-8)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에돔 우회 전승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sup>32)</sup> 그러나 P가 처해 있는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단락의 의도는 예후다의 제사장 집단이 에돔과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이런 입장은 에돔-포로후기에 국가로 존재했는지는 역사적으로 확실치 않다-이

29) 밀그롬은 민수기 20-21장이 상호 연관이 있는 두 패널의 대칭구조를 지닌다고 분석한다(Milgrom, 윗글, 463-7).

30) Dozeman, 윗글, 160, 167

31) 그 차이는 제2성전시대에 제사장이 다스리는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론이 옹호되는 현실로 상정해 볼 수 있다.

32) 창세기의 족장 전승에 따라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건하게 대했다(Wenham, 윗글, 152),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었다(Ashley, 윗글, 393),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 거부한 에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하려는 원인론 기능을 한다(Dozeman, 윗글, 162), 유다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8세기 이후의 정황을 반영한다(Levine, 윗글, 92) 등등.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포로후기 예후다와 에돔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일한 경우는 J. Sturdy의 주석(*Numbers*,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2)뿐이다. 그는 이 사건을 주전 500-400년의 정황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포로후기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예후다의 교역 상대 혹은 고대 근동의 주요 교역로였던 왕의 대로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닐까 싶다.<sup>33)</sup>

마지막으로 P는 호르 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계승했다고 전한다(22-29절). 그가 죽은 이유는 트리바 물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거역한 모세와 공동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민수기 33장에서 재차 언급되는 아론의 죽음은 매장 장소를 소개하려는 이유에서이다.

## 6) 민수기 21장

이어서 P는 곧장 네겟 지역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무찌른 JE의 호르마 전승을 소개한다. 에돔 지역을 우회하느라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삽입하는 것 같다. 결과는 승리이다. 그러나 에돔 지역 우회(P)의 결과로 식량과 물 부족을 호소하는 회중 내부의 불만을 발생했다. 그 결과는 불뱀을 보내 회중을 죽이는 야훼의 심판이 초래되었다(JE).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전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하지만 P가 이 뿔뿔을 깨부순 히스기야 개혁 전승(D)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쩌면 P는 치유의 기능이 있는 상징으로서 뿔뿔의 기원이 광야 시대 모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발생하는 수사적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성전 중심의 P에게 뿔뿔—이미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다!—은 포로기나 포로후기 공동체의 신앙 대상과 제의 장소에 대한 초점을 흐려놓을 수 있었다.

10-20절에 있는 여정과 노래는 P가 광야 여정을 완성된 형태로 보여

33) 참고. E. A. Knauf, "Biblical Reference to Judean Settlement in Eretz Israel (And Beyond) in the Late Persia and Early Hellenistic Periods," Philips R. Davies and Diana V. Edelman (eds), *The Historian and the Bible: Essays in Honor of Lester L. Grabbe* (New York: T & T Clark, 2010), 187-90.

주기 위해 여기저기서 수집한 전승들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이곳의 여정기록은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2장의 것과 세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P가 광야여정 기록을 신학적 목적을 갖고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민수기의 P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방랑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정복을 목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34)</sup>

## 7) 민수기 22-24장

이어서 P는 22-24장에 걸쳐 전개되는 JE전승의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예언자 발람에 관한 긴 이야기를 소개한다. 분량이 긴 만큼 P의 편집 의도를 상세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2장 6절이 모압의 사건에 미디안 장로의 개입을 보도한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을 주석가들은 P의 삽입구로 보지만 그렇게 해야 했던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sup>35)</sup> 이것은 P가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활용의도에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포로후기 통혼금지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디안 사람에게 취한 적대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브돌에 거주하는 브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고용한 사건을 보도한다. 그러나 예언자로서 그가 지닌 영적 상태는 나귀보다 못하다(22:22-30). 이것은 이 예언자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수행한 역할은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단 한 치도 변경시키지 못한다. 오직 그 옛날 야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축복의 말씀(창 12:1-3)을 거듭 재확인해 줄 뿐이다. 발람 이야기를 이용하여 P는 두 가지 목적을 성

34) Dozeman, *율글*, 164-5

35) 예를 들어, Levine, *율글*, 145

취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이 이방 예언자의 기능과 역할을 은연중 폄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을 통해 전해진 야훼의 땅과 축복에 관한 약속을 재차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이름이 지닌 뜻은 의미심장하다. 발람은 히브리어로 빌람(~lb bilam=bil-am)이다. “백성이 아니다”는 뜻을 지닌 이 이름은 다시 말해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지닌다. “그가 만일 어떤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는 만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발람 왕을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 대신 예기치 않은 축복은 발설할 때 그는 만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는 뜻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 된다.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제사장 집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는 발람과 같은 유능한 이방 예언자를 고용하여 이 약속을 무위로 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완고하게 천명한다. P는 지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여져서 그 땅을 다스리는 일만이 그들 앞에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설정해 놓은 생각이기도 하다.

### 8) 민수기 25장

바알브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싯딤에서 모압 여인과 벌인 배교 행위를 다룬 JE(1-5절)와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벌인 혼합결혼을 다룬 P(6-19절)로 구성되어 있다. JE는 모압 여인으로 인해 발생한 배교에 대하여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려는 처결을 선언하지만 단락 내에서는 결론이 없다. 반면, 여기에 잇대어 P는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통혼한 결과

로 염병이 생겼다고 묘사한다. 이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이 극단적인 간섭을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염병이 그쳤다(6-9절). 아울러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를 칭송한다(10-13절). 두 전승들은 내용에 차이가 있다. JE는 모압 여인 때문에 바알브올에 가담했다고 언급하고 P는 미디안 여인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 단락의 결론부인 16-18절은 브올의 일, 즉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일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기술함으로써 두 전승을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고 있다.

P는 이 사건을 기술하는 단락의 결론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합하는 일은 결국 우상숭배 즉 배교로 빠질 수 있다고 단언한다.<sup>37)</sup> 여기에 P가 미디안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앞서 민 12장에서 언급한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 그룹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25장에서는 그것과 유사한 사태를 한층 더 심도 있게 다룬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다른 민족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는 일은 배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론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비느하스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미디안 여인을 다시 다루는 것은 P가 앞서 다룬 12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편집구조는 P의 순혈주의적 주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P는 제2성전시대 예후다의 현실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거룩한 프로젝트를 군주시대 전승을 활용하여 이곳 민수기 10-25장을 통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민수기 10-25

36) Robert B. Coote and David R. Ord, *The Bible's First Hi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291.

37) Philip J. Budd, *Numbers* (WBC5; Waco: Word Books, 1984.), 280; Levine, 윗글, 288; Itamar Kislev, "P, Source or Redaction: The Evidence of Numbers 25," T. B. Dozeman, K. Schmi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Tubingen: Mohr Siebeck, 2011), 393; R. Albertz,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 Wissenschaft* 125 (2013), 223.

장에 이어 나머지 단락에서 P는 두 번째 인구조사(민 26장)를 실시하는 대목을 배치하고 여인 상속의 건(27, 36장), 제물 드리는 일에 관한 구체적 규정(28-30장)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의 전멸시킨 사건(31장)을 다룬 후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땅 상속에 관한 지파들의 주장(32장)과 광야 여정을 요약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33장) 영토의 경계를 지정함(34-35장)으로써 민수기를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을 신명기에 견주어보면, 민수기는 P가 염두에 둔 사경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다.<sup>38)</sup>

### 3. 결론: P의 당면과제와 응답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민수기의 P가 군주시대 전승(JE)를 활용하여 추구했을 수사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한 칙령을 반포한 이래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던 유다 왕국의 제2세대들은 수차례에 걸쳐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주전 520-515년에는 58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 이후 페르시아의 변방 식민지인 예후다는 제사장 집단의 리더십을 통해 내내 존속했다. 제2성전시대의 제사장 집단은 창세기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긴 내러티브(JEP)에 포로시대 중반쯤 완성되었을 신명기(D)를 첨가하여 오경을 마무리하였다.<sup>39)</sup> 그들은 기존의 군주시대 전승모음집(JE)과 신명기(D)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작성했다.<sup>40)</sup> 우선 창조전승을 JE와 D의 첫머리에 위치시키고 JE에 족보

전승을 이용하여 연대기적 연속성을 부여하였고 기존의 시내 산 전승(JE)에 성막 전승과 레위기의 제사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들이 마주한 사회는 보다 강력한 사회질서와 규범이 필요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자체 리더십이 없이 지낸 반세기 가량 팔레스타인 사회는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분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귀환공동체의 인구가 충분치 않아서 팔레스타인의 예후다 사회는 여러모로 취약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한 제사장 집단은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다. 첫 번째 작업은 땅 밖에 사는 동족들이 아직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귀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귀환을 촉구하는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작용했을 귀환 반대논리는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민 13:32)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장정만 육십만 명이 넘는 인구조사 결과를 두 번씩(민1 장과 26장)이나 소개하면서 약속의 땅 정복(즉, 귀환) 명령의 즉각적 이행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작업은 약속의 땅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질서와 기강 해이를 신앙적으로 확립하는 일이었다. 사회 질서를 세우려는 P의 조치는 대표적으로 성막 중심으로 배치된 열두 지파의 진영을 소개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민 2장). 한편 제사장 집단 내의 질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였다. 군주시대 동안 아론계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은 특별한 구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방 성소에서 일할 수 있었다(신명기를 참고하라). 하지만 예후다의 정치경제적 구조 안에서는 군주시대에 존속했던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제사장의 중앙권력을 강

38) Alibert, 윗글, 230-32. 알버츠는 민수기 25-36장이 여호수아서를 대체하는 기능을 지니는 오경 편집 역사 가운데 주전 5세기 말과 4세기 초에 이루어진 마지막 단락이라고 주장한다.

39) 신명기의 최종형태를 포로후기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Thomas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New York: T & T Clark, 2005]).

40) 이와 달리 베이트(Joel S. Baden,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9)은 단 한명의 편집자가 J(군주제 전승)/E-D(예언자 전승)/P(제사장 전승)를 한 번에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해석은 전통적인 문서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 집단은 아론계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 사이에 엄정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으로 표명되었다(민 3-4장). 더불어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만과 반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점도 강조해야 했다. 이것이 민수기 16-17장의 광야 반란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었다.

세 번째 작업은 제사장이 지도하는 일반 백성들을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결속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은 통혼금지 정책으로 나타났다.<sup>41)</sup> 그런데 이 조치는 예상치 않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신성한 권위를 지닌 예언자 모세가 바로 이방여인인 십보라(혹은 구스여인)와 통혼한 당사자였다는 점이 반대논리로 나타난 것이다. 제사장 집단은 이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것은 예언자의 권위와 활동이었다. P는 이 두 가지 이슈를 군주시대 전승을 활용하여 동시에 해결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P가 편집한 최종 본문은 예언자의 권위 문제와 이방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함께 다루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11-12장). 11장에서는 식량문제로 인해 불만이 터진 사건을 예언자의 권위로 푸는 방식으로 다루었으며 동시에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세의 발언에 근거하여 모두 예언자라면 아무도 예언자가 아니라는 역설을 설정하였다. 제사장 집단에 예언자란 동일 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신탁수령인이었으므로 그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수기의 P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이렇다.<sup>42)</sup> 유일한 예언자 모세를 제외한다면 예언자는 더 이상 필요 없

41) 제사장 집단의 이방인과 통혼금지 정책은 제2성전시대의 주요 사안이었다. 역대기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그 증거이다.

42) 참고, A. M. Cooper and B. R. Goldstein, "At the Entrance to the Tent: More Cultic Resonances in Biblical Narrativ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2 (1997), 201-15. 쿠퍼와 골드스타인은 오경 안에서 역사적 등장 순서대로 RJE(군주시대 전승 편집), P(제사장), D(신명기), H(성결법전)를 각각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의 향배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논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 문서 층의 역사적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한편, 이방여인과 통혼하는 일의 금지와 관련하여 P는 일차적으로 모세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모세의 예언자로서의 신성한 권위 자체는 손상시키지 않아야 했다. 이것이 12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논쟁 단락이 묘사하려는 바일 것이다. 모세와 구스여인과 결혼의 문제가 예언자와 하나님의 계시 중개인으로서 지니는 권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미리암만 피 부병에 걸리게 된 사건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제사장 집단의 조상인 아론은 처벌에서 면제된다. P는 모세를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한다(민 12:7,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지만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일만큼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P는 이방여인과의 통혼 문제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내러티브를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25장에서 P는 미디안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의 지도급 남성을 비느하스가 처형한 사건과 31장에서 미디안 남자를 전멸시킨 전승을 소개함으로써 미디안 사람과 통혼하는 문제를 강력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수기의 P는 나머지 단락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제2성전 시대 성전 중심의 지도력을 확립했다. P는 10장에서 법궤의 광야 인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장인 호밤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인 모세에 관한 기사를 통해 법궤라는 성물이 안치되어 있는 성막(제2성전시대 성전의 원형) 중심의 제사장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성전중심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가 만든 늦뱀 기사도 P에게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 프리바 물가에서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전승은 모세의 자손들이 회중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와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무를 계승하고 있다는 기사와 대조된다. 이러한 수사법을 통해 P는 비록 아론이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의 제사장 직무는 계속 이

어지고 있기에 그의 직무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예언자의 신성한 직무의 한계에 관해서 P는 22-24장의 긴 발람 내러티브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한다. 예언자라고 해도 별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누구라도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과 실천의 대상일 뿐이다.

제2성전 시대 제사장들은 민수기 작성을 통해 예후다 사회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집단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한다. 최종적으로 P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스라엘 회중의 엄청난 수효에 대한 정보를 재차 소개하면서(민 26장) 땅 상속과 분배에 관한 진술을 통해 땅으로의 귀환추구 의도를 지닌 민수기를 마무리한다.

#### 4. 참고문헌

- 우택주, “주전 10세기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성 논쟁,” 「복음과 실천」 54집 (2014, 가을), 15-42.
-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정중호, 「민수기 1」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_\_\_\_\_, 「민수기 2」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Albertz, Reiner,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Zeitschrift für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5 (2013), 220-233.
-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 Baden, Joel S.,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Budd, Philip J., *Numbers* (WBC5, Waco: Word Books, 1984).

- Chavel, Simon, “Numbers 15, 32-36 A microcosm of the Living Priesthood and Its Literary Production,” Sarah Shectman and Joel S. Baden (eds), *The Strata of the Priestly Writings: Contemporary Debate and Future Direction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9), 45-55.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Press, 1979).
- Cooper, Alan M, and Bernard R. Goldstein. “At the Entrance to the Tent: More Cultic Resonances in Biblical Narrativ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2(1997), 201-215.
- Coote, Robert B. and David R. Ord., *The Bible's First Hi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_\_\_\_\_,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우택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원저 Coote, R. B.,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1).
- Coote, Robert B. and Mary P. Coote, 「성서와 정치 권력」 (장춘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원저 Power, *Politics and the Making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Cross, Frank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Davies, Eryl W., *Numbers*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 Douglas, Mary,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Sheffield: JSOT Press, 1993).
- Dozeman, Thomas B. “The Midianites in the Formation of

- Numbers.” Thomas Römer (ed.), *The Book of Leviticus and Numbers* (Leuven-Paris-Dudley: Uitgeverij, 2008), 273-84.
- \_\_\_\_\_, *The Book of Numbers* (NIB, 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Friedman, Richard E., *The Bible With Sources Revealed* (San Francisco: Harper, 2003).
- Gray, George B., *Number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1903]).
- Kislev, Itamar, “P, Source or Redaction: The Evidence of Numbers 25,” T. B. Dozeman, K. Schmi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87-99.
- Knauf, E. A., “Biblical Reference to Judean Settlement in Eretz Israel (And Beyond) in the Late Persia and Early Hellenistic Periods,” Philips R. Davies and Diana V. Edelman (eds), *The Historian and the Bible: Essays in Honor of Lester L. Grabbe* (New York: T & T Clark, 2010), 175-93.
- Knierim, Rolf K. and George W. Coats, *Number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5).
- Knoppers, Gary N. and Berard M. Levinson (eds.), *The Pentateuch as Torah: New Models for Understanding Its Promulgation and Acceptan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 Leveen, Adriane B., *Memory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Numb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Levine, Baruch A., *Numbers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3).
- \_\_\_\_\_, *Numbers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Magonet, J., “The Korah Rebell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4(1982), 3-25.
- Milgrom, Jacob,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Noth, Martin, 「민수기」, (이경숙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원저 Noth, M., *Das vierte Buch Moses: Numeri* (ATD 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 Olson, Dennis T.,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of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Scholars Press, 1985).
- Olyan, Saul M., *Rites and Ranks: Hierarchy in Biblical Representation of Cul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Rö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New York: T & T Clark, 2005).
- Sebass, Horst, “‘Holy’ Land in the Old Testament: Numbers and Joshua,” *Vetus Testamentum* 56 (2006), 92-104.
- Shectman, Sarah, *Women in the Pentateuch: A Feminist and Source-Critical Analysis*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 Shectman Sarah and Joel S. Baden (eds.), *The Strata of the Priestly Writings: Contemporary Debate and Future Direction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9).
- Sommer, Benjamin D., “Reflecting on Moses: The Redaction of Numbers 1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1999), 601-24.
- Sturdy, J., *Numbers*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Watts, James W., “The Torah as the Rhetoric of Priesthood.” Gary N.

Knoppers and Bernard M. Levinson (eds.), *The Pentateuch as Torah: New Models for Understanding Its Promulgation and Acceptan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319-31.

\_\_\_\_\_, "Using Ezra's Time as a Methodological Pivot,"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and Baruch J. Schwartz (eds), *Pentateuch* (Tübingen: Mohr Siebeck, 2011), 489-506.

## 검색어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J, E, or JE)

제2성전 시대

제사장적 편집의 수사적 의도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 촉구

사회질서 확립

통혼금지

## 'The Priestly Redactors' Rhetorical Intention on the Monarchic Traditions in the Book of Numbers

Taek Joo Woo,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in the final form of the book of Numbers what kind of rhetorical intentions the priestly group as

the second temple leaders in the Persian Yehud province could have possessed. The book of Numbers describes the wilderness journey of the Exodus Israelites, which did not exist, according to the view of critical biblical scholars. So the book of Numbers was probably written to set up authoritative instruc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second temple society in Palestine. In order to solve the multiple problems raised from Yehud on its own, P utilized the monarchic tradition. As a result of reading the composite passages under consideration, we could reach several conclusions. P's first rhetorical intention would be to encourage the Israelites outside Palestine to return to the promised land since the returnees may be not enough in number. The second would be to make a strictly ordered society since there was no tight government for a long time. To accomplish this job, it is likely that P, first of all, must have discouraged the prophetic ministry which might compete with the priestly leadership. However, they only wished to maintain the sacred authority of the one man, Moses. The third might be to prohibit intermarriage. This measure could have met with considerable opposition on the ground of Moses' intermarriage with Zipporah, a Midianite or a Cushite woman. That's why P's redactional work in the book of Numbers shows a strong antagonism against the Midianites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book. Such rhetorical intentions fit well with Ezra's and Nehemiah's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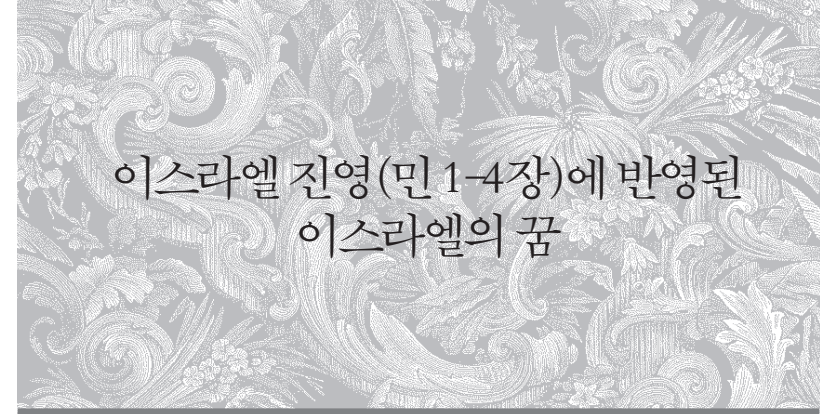
## Keywords

the monarchic tradition (J, E, or JE) in the book of Numbers

www.kci.go.kr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rhetorical intentions of the priestly redaction  
exhortation to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establishing the social order  
prohibiting the intermarriage

- 투고일: 2014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06일



한동구(평택대)

## 1. 서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 산에 도달하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광야를 떠났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이동)성전의 건립에 대하여 보도하고(출 25-31, 35-40장), 레위기에서는 제의규정(레 1-7장), 각종 정결규정(레 11-15장) 및 성결규정(레 17-26장)을 제정한 것을 보도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새로이 편성하고(민 1-4장), 이어 다양한 정결규정 및 성결규정(민 5-10장)을 부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민수기 1-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진영의 조직은 그 중심에는 회막(만남의 장막)이 있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외곽에 그 밖의 다른 지파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거룩함의